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合肥学院	기숙사비	6000元/한 학기
파견지역	合肥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9.04.~2017.12.28	기타비용	없음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중어중문학과
성 별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1. 16.

파견자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오티 주 전주에 간단한 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에 따라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뉘어 총 15주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독해, 말하기, 쓰기, 듣기, hsk로 5개의 과목을 각기 다른 중국교수님들께서 맡아 하셨다. 중급반에서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교수님들께서 기초적인 문법, 성조, 발음을 많이 체크해주셨으며, 혹시나 우리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고급반에 비해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고 진도도 서두르지 않으셨다.

독해 교수님께선 성조에 주의를 많이 주셨고, hsk 교수님께선 어법에 신경을 써주셨다.

쓰기 시간엔 매 시간마다 작문 하나씩 써서 제출하였고, 듣기 수업 땀 교수님께서 한명씩 돌아가며 녹음 내용을 듣고 외워서 말하게끔 시키셨다.

말하기 교수님께선 가끔씩 중국학생들을 중급반 수업시간에 들어오게 하여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과제는 쓰기 교수님만 내주셨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내주시지 않았다.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주제에 맞는 글을 제한된 글자 수에 맞게 써서 제출하는 과제였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과제하는데 부담은 없었다. 특히나 쓰기수업에만 유일하게 과제가 있어 복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던 것 같았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15-20분 나가면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 다양한 놀거리와 식당가가 있어 시내로의 접근이 쉬웠고, 허페이 기차역이 20-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위치해있어 근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기차라는 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학교 주변에 큰 호수가 있어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좋았다.

허페이가 우리나라 보다 위도가 조금 낮아 춥고 눈이 왔던 한국에 비해 따뜻한 봄 날씨 같았고 눈이 전혀 오지 않았다. 한 학기 내내 거의 코트를 입을 정도였으니 조금 쌀쌀하다 못해 포근할 정도였다. 다만 비가 좀 많이 내려 항상 우산을 갖고 다녔던 것 같다.

택시가 학교 근처로 정말 많이 다녔지만 버스가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생각보다 많기도 했으며, 기숙사 근처에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훨씬 많이 이용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육교를 건너면 마트와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방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멀리 걸어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필요한 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나 주변에 택배 회사가 많아서 택배가 오면 바로바로 편하게 갖고 올 수 있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6000元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23시 전까지 기숙사 문 개방		
주인사항	없음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방 2개, 화장실, 주방이 보인다. 거실엔 식탁,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전신거울, 신발장, 건조대, 에어컨이 있다. 거실이 꽤 넓은 편이어서 짐을 풀어놓아도 넉넉하여 배달 온 물이 있으면 거실에다 놔두었다. 또한 건조대 위에 에어컨이 있어 빨래하고 건조대에 널어놓으면 잘 말랐다. 식탁과 의자 4개가 있어서 룸메들끼리 거실에서 같이 밥을 먹기에 좋았던 것 같다.



한 방에 두 사람이 같이 써서 책상, 침대, 옷장, 의자, 서랍장, 모두 두 개씩 있었다. 방 안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출거나 덥진 않았고 방이 1층이어서 창문 밖에 창살이 쳐져 있었다. 가구 배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개인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옷장과 침대의 위치를 바꿔 놔다. 등이 두개가 있지만 불빛이 너무 침침해서 따로 스탠드 하나 구매하였다. 문을 닫으면 거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음이 잘 되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화장실 안엔 세면대, 변기, 샤워장이 있다.
크기는 좀 작았지만 있을 거 다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온수 냉수 다 잘 나왔지만 온수는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가끔씩 샤워하다 찬물이 나와 조금 불편하긴 하였다. 더군다나 정전도 자주 났었는데 정전이 나도 온수가 안 나와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배수구 물이 잘 안 빠져 조금만 씻어도 바닥이 물에 잠기곤 했었다. 그래도 환기 잘되고 온풍이 잘나왔던 것 같다.



주방에 냄비, 프라이팬, 그릇 등 주방용품이 구비돼있어 재료만 준비하면 바로 요리 할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후드가 있어서 고기 같이 연기 나는 음식 할 때 편안했다. 가스도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거여서 가끔씩 요리하다가 가스가 끊기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고 밑엔 수납공간이 많아 주방을 사용하는데 나를 편리했다.

사 진 첨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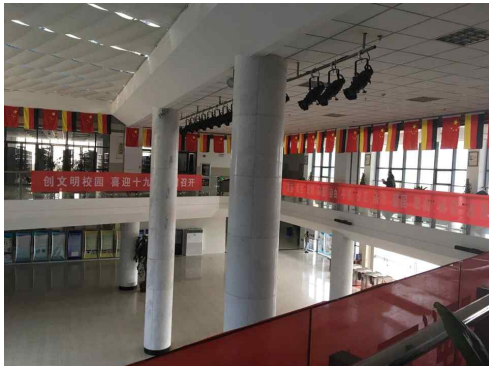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강의실)

강의실 전면 사진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칠판, 에어컨 이외에도 강의실이 대청으로 되어 있어 강의실 뒤쪽에도 칠판, 에어컨이 하나씩 더 있다. 책상과 의자는 반 학생들이 앉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고,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겨울에 조금 추웠다. 칠판 밑 강단이 조금 올라가 있어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발표할 때 주목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던 것 같다.



(도서관)

도서관을 처음 들어갔을 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빨간 플랜카드와 깃발이 가득 걸려있었고 입구 옆에 넓은 독서실이 위치해 있었다. 2, 3층엔 자료실이 있고 다시 4층부터 5층까지 독서실이 있다. 중국은 워낙 QR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QR코드 인식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 직접 사용해 봤는데 한국 도서관에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공연장)

유학생 기숙사 옆에 있는 공연장으로 바로 밑에 층엔 학생 식당이 있다. 사진에는 조금 작게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좌석 2000개가 있는 규모가 큰 공연장이다. 12월이 되면 각 과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곳 말고도 공연장이 하나 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한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1. 사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교환학생을 간다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조금 더 중국어를 배우고 듣고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많은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으로써 자연스럽게 평상시 하루의 반 이상을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생활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여태까지 중국어를 오직 책을 통해 오랫동안 공부해왔지만 역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만큼 언어를 빠르고 완전히 습득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

2. 중국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춤, 컴퓨터, 여행 동아리에 참여하여 매주 3-4일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였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중국친구들이 많이 챙겨주고 신경써줘서 동아리 활동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동아리가 잘 모이긴 하지만 한국 동아리보단 활동을 다양하게 하진 않는 것 같다. 특히 여행 동아리 같은 경우 여행지와 여행 날짜가 정해져도 가는 인원이 너무 적어 취소된 적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컴퓨터 동아리가 자주 활동을 했지만 전문적인 컴퓨터 용어를 가지고 수업을 한 적도 있어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밀퐁밀퐁 앉아만 있었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춤 동아리 말고도 한국 유학생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 미리 춤 연습을 한 후 12월 학교에서 개최하는 각 과별 공연에 몇 번 서기도 했었다. 교환학생을 간다면 중국을 간 김에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 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마땅치 않아 국경절 친구와 함께 난징 여행을 다녀왔다. 허페이에서 기차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당일치기로 다녀왔었다. 처음 떠난 중국여행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행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중국어에 한층 자신감을 불어준 즐거운 여행이었다.

3. 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모두 좋은 분이셨지만 솔직히 수업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 수업 당 중 2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간혹 어떤 교수님께선 쉬는 시간 후 남은 1시간 수업을 그냥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어떤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 수업보다 개인적인 일에 더 집중하여 수업에 집중하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에 조금 inquiet을 가졌던 것 같다.